‘감염예방·관리료’ 보험수가 신설

감염관리실 운영-전담간호사 배치 병원 대상

‘감염예방·관리료’ 건강보험 수가가 9월 1일부터 신설됐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혔다.

지난해 메르스 확산을 계기로 병원 내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관리를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했다.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원 내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전담의사 인력을 배치해,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인력 중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돼 월 평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감염관리실 업무를 전담해 근무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전담인력의 배치 수준에 따라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눠 수가가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등급 2380원, 2등급 1950원으로 산정됐다. 병원은 1등급 2870원, 2등급 2420원이다. 입원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산정한다.

등급별 전담인력 기준을 보면 1등급의 경우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수가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150대 1 이하이며,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또는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사 수가 500대 1 이하여야 한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 : 1 이하이되,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 2인으로 산정한다.

2등급의 경우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수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200대 1 이하이며,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또는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사 수가 600대 1 이하여야 한다. 감염관리의사는 1등급 기준과 동일하다.

단,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3년, 의사는 1년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둔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전담간호사와 전담의사를 각각 최소 1명 이상을 두면 된다.

감염예방·관리료를 적용받기 위해 실시해야 하는 활동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전 직원 대상 감염관리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감염관리 지침 마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활동을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 및 기록 등이다.

감염예방·관리료를 적용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인력, 시설 등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 세미나

간협-노인간호사회 공동 개최

노인간호사회(회장·이금재)는 대한간호협회(회장·김옥수)와 공동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 세미나’ 및 ‘노인간호사회 워크숍’을 9월 2~3일 KNA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의 간호서비스 확대 및 역할 정립, 노인 대상자 중심 간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 세미나에서는 홍석원·차선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이 ‘ICT 기반 원격간호’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의 텔레너싱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방문간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치매돌봄 정책과 통합재가서비스’ 주제로 발표했다.

유애정 부연구위원은 “치매지원정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급여는 모두 연속적 선상에 있는 과제”라며 “치매환자의 생활패턴에 맞춘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간호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전 국회의원)가 ‘간호관련 의료법 개정 경과와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노인간호사회 워크숍에서는 요양시설, 주야간보호·단기보호시설, 방문간호사업에서의 간호사 역할 확립 방안을 주제로 분임토의를 실시했다. 이영란 노인간호사회 이사가 ‘노인환자의 상처사례별 드레싱 적용’ 주제로 특강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맞는 노인전문간호사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자리가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여러 방안과 해결책을 얻고, 노인간호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금재 노인간호사회장은 “노인건강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장과 발전의 장으로 이번 세미나와 워크숍을 마련했다”면서 “간호현장에서의 고충을 서로 나누고 공감하며 함께 발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충북간호사회 한명자 회장 승계

충북간호사회 이미현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함에 따라 회칙 제37조에 의거해 한명자 제1부회장(사진·전 금관보건진료소장)이 회장직을 승계했다. 8월 26일자.

한명자 충북간호사회장은 1981년 한국교통대를 졸업했으며, 연세대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줄곧 보건진료소장으로 일했다.

충북보건진료소장회 회장, 충북간호사회 이사, 청원군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인촌상(공공봉사부문)을 수상했다.

한명자 회장은 “회원의 권익향상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힘쓰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회원과의 공감대 형성과 유대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충북 진천군보건소 김달환 소장

충북 진천군보건소 소장에 김달환 덕산면사무소 면장이 임명됐다. 7월 1일자.

김달환 소장(사진)은 한국교통대를 졸업했다. 1978년 공직에 입문했다.

진천군보건소 건강관리팀장·예방의학팀장,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복지기획팀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며 덕산면사무소 면장을 맡아 일해왔다.

김달환 소장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강습관 개선 및 건강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9월 현재 간호사 출신 보건소장은 김달환 소장을 포함해 모두 18명이다.

주혜진 기자 hjjoo@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16곳 오픈

연구 목적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

앞으로 민간에서 연구나 사업화 목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보다 편리하게 접근해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가칭)’를 출범시키고, 직접 방문해 데이터를 분석·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센터 총 16곳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는 복지부가 주관하고, 건보공단 및 심평원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개방 범위 및 이용절차 등 주요 정책사항이나 건보공단과 심평원 간 효율적인 데이터 공유·연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빅데이터에 대한 전국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 의료기관·학계·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 8곳씩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개소했다.

센터에 방문해 분석·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건보공단 2조8738억건, 심평원 2조2289억건에 이른다.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전후에 상세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제출한 후 이용 가능한 날짜를 안내받은 뒤 가까운 지역 센터에서 분석공간 및 접속계정을 배정받아 사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홈페이지(nhiss.nhis.or.kr)에서 신청 등록 가능하며, 심평원은 이메일(opendata@hira-mail.net)로 필요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빅데이터는 21세기 새로운 원유라고 불릴 정도로 유망한 산업이며, 특히 의료는 활용도 높은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국민관심 질병·진료행위 통계 확대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손명세)은 국민관심 질병·진료행위 통계를 150개 항목에서 200개 항목으로 확대해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된 50개 항목은 뇌수막염 등 국민관심 질병통계 31개 항목, 기관지경검사 등 국민관심 진료행위통계 17개 항목, 담낭암·담낭절제술 등 국민관심 질병/행위통계 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심평원은 공개된 항목들에 대해 환자 수, 내원일수, 진료비 등 통계뿐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도별 추이 및 점유율 등 시각화된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원하는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도록 국민관심 통계에 대한 산출기준과 세부설명이 담겨있는 ‘질병·행위통계 산출내역 표준안내서’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질병의 정의와 의학적 상세 설명으로 구성됐으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주혜진 기자 hjjoo@

이혜옥 간호사 개인전 ‘힐링 가든’ 열어

그림 통해 치유의 힘 나누고 싶어

“그림을 그리면서 인간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간호의 힘을 새롭게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간호사로 후회 없이 일했고, 은퇴 후에는 화가의 길을 걷고 있는 이혜옥 전 병원상처장루실금간호사회장이 전시회를 열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인전을 ‘힐링 가든(Healing Garden)’ 주제로 서울 인사동 조형갤러리에서 8월 24~29일 개최했다.

일상에서 또는 여행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숲과 정원을 화폭에 담았다. 전시된 작품 23점은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서양화로 밝고 선명한 색채를 사용해 치유의 힘을 전하고 있다.

이혜옥 간호사는 정년퇴임을 1년 앞둔 2014년부터 어려서부터 꿈꿔온 그림에 본격적으로 도전했다. 첫 개인전에서 판매된 작품의 수익금은 자신이 몸담았던 서울아산병원에 기부했다.

그림을 감상한 사람들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할 때 큰 기쁨을 느낀다고. 이혜옥 간호사는 “그림은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갖고 있는 데, 이는 근원적으로 간호와 맞닿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꾸준히 그림을 그려 매년 한 번씩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혜옥 간호사는 안산대 간호학과를 졸업했다. 병원상처장루실금간호사회장, 아시아·태평양상처장루실금간호학회장을 지냈다. 현재 세계장루간호전문가회(WCET) 한국 대표, 건양대 간호학과 외래교수를 맡고 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추석 연휴 관계로 9월 15일자 신문 휴간합니다.

간호사신문 |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쇄인 김 갑 기 |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산 하 단 체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병원간호사회	(02) 2261-1711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69-6348	보건간호사회	(02) 525-7318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5-3390	보건진료소장회	(02) 2266-7677
인천시	(032) 441-2925	전라남도	(061) 277-2292	보건교사회	(02) 527-3360
광주시	(06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마취간호사회	010-3103-0748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62-6006	보험심사간호사회	(02) 2263-1959
울산시	(052) 258-2311	제 주 도	(064) 747-3811	산업간호사회	(02) 716-9030
경기도	(031) 252-0351	군 진	(042) 878-4580	가정간호사회	(02) 2267-5688
강원도	(033) 263-6417			정신간호사회	(02) 425-1271
				노인간호사회	(031) 750-598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8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기술직 공무원 간호직 보건직 보건진료직 의료기술직 국가면허시험 간호사국가고사 위생사 연세대 RN-BSN

최다합격자 + 입소문 • 합격생이 적극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2016. 6월 대방열림고시학원 직강 현황 모습

★ 대방열림고시학원의 강점 ★

- 과목별 수험생 선호도 1위 교수진 구성
- 매년 기술직 공무원 최다합격자 배출
- 수강생이 가장 많고 입소문으로 유명한 학원
- 학원직강을 그대로 촬영한 최신 동영상강의
- 최고의 시설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
- 최신 스마트폰 동영상 강좌 시스템
- 체계적인 시스템 및 학원직강 연중 무중단 진행

매월 초 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 > 심화반 > 기출문제반 > 단원별 • 모의고사 문제풀이반

2017 연세대 RN-BSN

db 대방열림 개강일 : 7월 8일 / 선착순 60명 접수중

오직 연세대학교 RN-BSN을 위한 특화된 강의로 직강 및 동영상 강의 진행중

상담문의 02-823-4700 서울 지하철 1호선 대방역3번출구 빕스 우측건물(1층 피자헛,2·4층학원)

www.yulimgosi.com